

“레벨이 달랐다” … 한국, 온두라스 6-0 대파 8강 골인

김학범호 결정력 아쉬웠던 황의조 해트트릭 컨디션 회복
원두재·김진야·이강인도 골맛 … 8강전 기대감 높아져

‘행운의 여신’이 또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28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온두라스와의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6-0 대승을 거뒀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 0-1로 밀리가 잡혔던 한국은 5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 승자가 되며 조 1위로 8강행을 확정했다. 동메달을 획득했던 2012년 런던대회 그리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8강)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8강 진출이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B조 뉴질랜드와 루마니아와의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한국을 1-0으로 꺾었던 뉴질랜드가 골득실차에서 앞서 조 2위로 8강 티켓을 얻었다. 무승부만 해도 8강이 확정되는 경기. 황의조(보르도)가 원톱 스트라이커로 섰고, 김진야(서울)가 이동준(울산)과 좌우날개를 구성하며 처음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권창훈(수원)이 공격형 미드필더, 원두재와 김진규(부산)가 더블 볼란테를 맡았다. 골키퍼 송범근(전북)을 중심으로 설영우(울산), 정태욱(대구), 박지수(김천), 강윤성(제주)으로 수비진이 구축됐다. 앞선 루마니아와 2차전에서 상대의 자책골과 퇴장에 힘입어 조 1위로 도약한 한국은 이번에도 상대의 실수 연발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 10분 이동준이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반칙으로 넘어졌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황의조가 키커로 나섰다. 앞선 1-2차전에 헛심만 썼던 황의조가 마침내 골

대 왼쪽 구석을 뚫으면서 이번 대회 첫 골을 장식했다. 그리고 전반 18분 한국의 두 번째 골이 터졌다. 이번에도 상대의 반칙으로 만든 페널티킥 골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정태욱이 상대에 잡혀 넘어졌고 다시 한번 주심이 휘슬을 불었다. 이번에도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원두재가 나서 오른쪽으로 추가골을 장식했다. 전반 38분에는 카를로스 멘델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전반 추가시간에 황의조가 오른쪽으로 기분 좋은 필드골을 더하면서 3-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황의조는 후반 6분 해트트릭을 장식했다. 김진야가 이날 경기 세 번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황의조가 다시 한번 골키퍼 앞에 서서 골망을 흔들었다. 전의를 상실한 온두라스를 상대로 김진야(후반 19분)와 이강인(후반 37분)도 ‘골맛’을 봤다. 뉴질랜드전 0-1 충격의 패배 뒤 루마니아전 4-0 승리로 분위기를 바꾼 한국은 기세를 이어 6-0 대승을 거두며 B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샀던 ‘와일드 카드’ 황의조가 기분 좋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8강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한국은 오는 31일 오후 6시 A조 2위 팀과 준결승 티켓을 놓고 다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리도 금 따자” … 양궁 세리머니 28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 대 온두라스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양궁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클라이밍 대표팀, 김홍빈 대장 근조 리본 달고 도쿄 입성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팀이 근조 리본을 달고 도쿄에 입성했다. 사상 첫 올림픽에 도전하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천종원과 서재현, 박희용 코치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29일에는 이창현 감독과 김상이 전담팀이 출국한다.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는 손중호 대한산악연맹 회장과 관계자들, ‘암벽 여제’ 김자민 선수와 남편인 오영환 국회의원이 마중을 나와 선수들을 응원했다. 천종원과 서재현은 “첫 올림픽 출전이라 긴장되고 떨리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선수는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67) 대장을 기리며 단복에 근조리본을 달았다. 천종원과 서재현은 “브로드피크 원정대 김홍빈 대장님의 숭고한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첫 발걸음을 떼는 스포츠클라이밍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은 8월 3-4일 남녀 콤파인 예선전, 5일과 6일에는 각각 남자 콤파인 결승전과 여자 콤파인 결승전이 열린다. /연합뉴스

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선수는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67) 대장을 기리며 단복에 근조리본을 달았다. 천종원과 서재현은 “브로드피크 원정대 김홍빈 대장님의 숭고한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첫 발걸음을 떼는 스포츠클라이밍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은 8월 3-4일 남녀 콤파인 예선전, 5일과 6일에는 각각 남자 콤파인 결승전과 여자 콤파인 결승전이 열린다. /연합뉴스

“또 서둘렀네요” … 유도 김성연의 후회

16강전에서 금메달 도전 멈춰

대한민국 여자유도 70kg급 김성연(30·광주도시철도공사)이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도쿄대회를 위해 5년 동안 굵은 땀방울을 쏟았으나 16강전에서 금메달 도전이 멈췄다. 김성연은 28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70kg급 32강전에서 아육 오테이 소피나(카메룬)를 손쉽게 제압했으나, 16강에서 미카엘라 플레레스(오스트리아)에게 골든스코어(연장전)에서 절반을 내주며 패했다. 이날도 5년전의 악몽이 되풀이 됐다. 당시 리우올림픽에서 김성연은 1회전(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 16강전에서 이스라엘의 린다 볼더에게 연장 접전 끝에 절반패를 당했다. 이후 충격을 딛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김성연은 도쿄에서 ‘올림픽 악몽’을 깨고자, 고된 훈련을 버텼다. 김성연은 “리우올림픽 이후 은퇴도 고민했지만, 도쿄올림픽을 바라보며 정말 최선을 다해 훈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에 애를 먹을 때도, 도쿄를 생각하며 버텼다”고 떠올린 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자책했다. 김성연은 “리우 때도 서두르다가 허무하게 패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는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금해질까 봐 손에 ‘괜찮아, 천천히’라고 썼다”며 “그런데 또 서둘렀다. 있어지기 공격을 계속 시도하면 상대가 대응할 수 있는데, 또 성급하게



유도 여자 70kg급 김성연이 28일 16강전에서 패한 뒤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핸드볼, 오늘 한일전서 첫 승 노린다

‘운명의 한일전’이 코트를 뜨겁게 달군다. ‘캡틴’ 류은희를 앞세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29일 일본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승을 노린다. 31일에는 김연경이 버티는 한국여자배구팀이 일본을 상대로 8강 도전에 나선다.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는 자존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8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면 안 되는 경기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9일 오후 2시 15분 일본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몬테네그로, 앙골라와 A조에 속한 한국은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졌다. 앞서 노르웨이와의 1차전은 27-39, 네덜란드와의 2차전은 36-43패로 끝났다. 강팀들과의 1-2차전에서 모두 패한 한국은 남은 세 경기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아야 한다. 조 4위까지 8강 토너먼트 자격이 주어진다. 분위기를 바꾸고 조 4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한일전이 됐다. 한국은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9년 한일전에서는 31-20으로 승자가 됐다. 여자 배구팀이 8강으로 가기 위해서도 일본전 승리가 필요하다.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높은 벽을 실감했던 한국은 케냐와의 2차전에서 기분 좋은 ‘첫승’을 신고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31일 오후 7시 40분 일본을 만난다. ‘학폭 논란’으로 뒤숭숭했던 배구판에서 ‘마지막 올림픽’에 나선 김연경이 구심점이 돼 파이터

를 외치고 있다. 일본이 세계랭킹 5위, 한국은 14위다. 현재 전력에서도 밀린다는 평가지만 김연경이 마지막 올림픽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한국이 반전 드라마를 꿈꾸며 뜨거운 여름밤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남자 7인제 럭비팀은 28일 ‘한일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11-12위 결정적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한국은 일본에 19-31(12-19 7-12)로 져 첫 올림픽을 5전 전패, 최하위로 마감했다. 하지만 출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던 올림픽이었다. 실업팀 3개(한국전력공사·포스코건설·현대건설 로비스), 대학팀 4개(연세·고려·경희·단국대)에 불과한 한국은 럭비 불모지나 다름없다. 대표팀은 2019년 11월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홍콩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작성하면서 사상 첫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1923년 국내에 럭비가 도입된 후 100년 만에 이루어졌다. 한국은 뉴질랜드,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5점을 만드는 데 그쳤고, 아르헨티나에는 한 점도 뽑지 못하면서 3연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아일랜드와의 9-12위 결정전에서도 득점에 실패한 한국은 마지막 11-12위 결정전에서 ‘아시아 최강’ 일본을 상대로 가장 많은 19점을 만들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올림픽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 (29일)	
	오전 7시 30분 남자 1라운드 임성재, 김시우
	오전 9시 30분~ 남녀 개인전
	오전 11시 남자 100kg급 32강 조구함 여자 78kg급 32강 윤현지
	오전 11시 여자 조별리그 3차전 한국 - 도미니카공화국
	오후 2시 15분 여자 조별리그 3차전 한국 - 일본
	오후 7시 남자 조별리그 1차전 한국 - 이스라엘

자료/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 연합뉴스